

'약용작물' 품종 육성 산업화 전략 찾는다

농진청, 11월 1일까지 중앙·지방·민간 공동연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31일~11월 1일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2024년 약용작물 중앙·지방 연구협의회 및 민간 협력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약용작물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 지방, 민간 생산단체와 품종 산업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산업의 경

쟁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 기술을 조기 보급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생산자 단체, 기업체 등 20여 개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연구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1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우태 연구사가 품종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약용작물 꽃가루 세포(소포자) 배양 기술'을 공유한다. 꽃가루 세포 배양 기술은 품종

개발에 필요한 순수 계통 육성 기간(5~8년)을 절반 정도(3년)로 줄이는 기술로, 도라지, 작약 등 6작물이 대상이다. 또한 중앙·지방이 함께 수행 중인 '표준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로 수요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부에서는 한국생약협회 윤성현 사무총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호연 박사가 각각 '국내 약용산업의 미래'와 '강원도 천연물 전주기 허브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새로운 품종

을 재배하는 생산자와 기업체 연계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도 중인 스마트팜 전환 연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운영호 과장은 "약용작물 품목은 20여 개 이상으로 많아 중앙·지방 사이 협업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행사가 지방, 민간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다지고, 농산업 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약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저축·투자 부문 국무총리표창'

전북은행 수신회장부 양은희 부장, 금융의 날 기념식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수신회장부 양은희 부장이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 29일 여의도 K타워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양은희 부장은 저축·투자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양 부장은 1989년 입행 후 현재까지 영업점과 본부부서를 두루 거치며 남다른 영업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물론 저축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한 마케팅 기획, 빠른 실행력으로 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도입으로 저축증대와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인프라 개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은희 부장은 "전북은행 입행 후 지금까지 영업점과 본부부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채널유지와 저축확대, 고객관리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효율적 마케팅으로 영업지원에 앞장서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수신회장부 양은희 부장이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상품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목표달성, 단기 목표 달성, 안정적 투자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최적의 수신회장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군 세대별 등 고객을 세분화해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저축 및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영업점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LX·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 디지털 전환 앞장

지적측량·공간정보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협력 MOU 체결

LX한국토지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와 지난 29일 서울 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X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기술력과 대한주택건설협

회의 주택건설 노하우를 결합하여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며 국민의 주거 품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협회 회원사에 첨단 지적측량, 공간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트윈, BIM 등을 지원하여 사업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안전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다. 또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적·공간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설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주택건설 관련 정책, 기술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주 회장은 "지적 분야 최고 전문 기업인 LX공사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주택건설현장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명소 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택사업자단체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회원사의 주택건설 현장에 언제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2024년 JBDC 하나그린음악회' 성황리 개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난 29일 공사 사옥에서 하나은행과의 협업으로 '2024년 JBDC 하나그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전북개발공사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 및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사회적 환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음악회는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현악중주단의 연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개발공사는 ESG경영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는 행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음악회 후 '2024년 그린적금'을 통해 모인 기부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적금은 2023년 바다사랑일 홍보 캠페인 및 ESG 적금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적금 가입 시 환경 보호를 위해 일부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전북개발공사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새만금지구 평가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새만금지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지구 개발사업 비산먼지 저감대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내 3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실적·자율점검 현황, 향후 관리방안 등을 발표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예측치 못한 기상상황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구역별·단계별 순차적 공사 시행, 사업장 노출식 식생 피복 등 다양한 비산먼지 저감방안 및 개선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자 및 승인기관과 함께 '비산먼지 저감대책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

세먼지 발생시기(12월~3월)에 앞서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만금지구 내에서 공사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방진덮개·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적재할 밀폐,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재희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새만금지구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는 지난 29일 노란우산 가입자 권익보호와 고객친화적 제도운영을 위해 '2024년 제2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2년도부터 도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총11인을 위촉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전북지역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한도 확대 △임의해약금 세계 개선 △임의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무이자대출 및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 항목 추가 등 노란우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 및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공동위원장인 박숙영 지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과 안종욱



대표(주식회사 울릭스)는 "가입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믿음직한 공제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복지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우용 중기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에게 종합 안전망을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